

캐나다 온타리오 브란트자치구,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발표

<http://www.brantfordexpositor.ca/2014/10/24/proposed-design-guideline-for-paris-unveiled>

온타리오 브란트 자치구의 다운타운 파리 지역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성장기의 도시로, 오래전부터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개발 지침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지역주민, 기업, 공무원과 정책입안자들로 구성된 브란트 자치구의 다운타운 파리 르네상스팀이 다운타운 파리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지역 특유의 경관과 풍부한 건축자산 등을 활용한 미학적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목표

- 현존하는 건축자산 및 역사경관의 특성을 보존하고, 이를 복합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건물 파사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지원
- 상업지구뿐 아니라 주거 및 업무지구 개선을 통해 가로환경 활성화를 지원
- 경관, 식재, 가로시설물 등 보행환경요소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통합적인 보행 경험을 창조
- 보행환경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수변산책로의 기능 향상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건축물 높이, 건축 경계선 및 단 후퇴선, 외벽(파사드) 설계 등과 관련한 지침을 포함한다. 모든 건축물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보다 도시 전체가 연속적인 경관을 지녀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자치구 위원회의 데이비드 밀러는 본 가이드라인이 건축주와 개발 주체의 주체성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런 경우 창문 하나를 바꾸는 데도 복잡한 관료적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운타운 르네상스 팀 소속 셸리 시몬스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행 가능한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다운타운 커뮤니티 향상 계획과 자치구 조례 등을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주체들, 건축주와 개발자, 기타 공공 부문을 지원하고 협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 개선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운타운
파리 지역구 경계



건축물 높이,
건축경계선 및 단 후퇴선 가이드라인

자료: Paris Renaissance Team,
Downtown Paris Design Guidelines version 4, 2014.

뉴욕, 미관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재생연구 착수

http://www.nyc.gov/html/dcp/html/cromwell_jerome/index.shtml

뉴욕시의 하우징 뉴욕 플랜 정책에 따라 브롱스 자치구 크롬웰-제롬 기초지역계획 연구가 착수되었다. 뉴욕시 도시개발부(DCP)와 유관기관들은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 소외 계층에 주거 기회 확대, 사회보장주택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기회를 증폭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과 용도지구 변경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며, 중산층 주택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 도시개발부는 주거보존 및 개발부(HPD), 소규모산업 서비스부(SBS),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DPR), 교육시설 건설청(SCA), 뉴욕경제개발법인(EDC), 환경개선사무소(MOER) 등과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도시개발부 교통국은 이미 브롱스 자치구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지역교통연구를 진행해 왔다. 해당 연구는 교통체계에 대한 지역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순환성·이동성·안전성·접근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물은 지역 이해당사자와 뉴욕시 교통부(COT)에 전달되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커뮤니티와의 연합은 해당 지역연구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중심축 역할을 한다.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의 직접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의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원을 도모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커뮤니티 연합의 한 동력으로 발족한 플래닝 그룹(Planning

Group)은 현장답사, 관찰, 설문, 소그룹토론, 쟁점토론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첫 모임을 가졌다. 플래닝 그룹의 첫 모임에서는 30명 이상의 지역주민, 개발 관련 이해당사자,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기반의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주체의 역할과 효과적인 커뮤니티 결합방안 등 주요 주제를 논의하였다.



플래닝 그룹 토론 진행 모습

국제건축가협회(UIA), 건물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목표 설정

<http://www.archdaily.com/537377/uia-commits-to-zero-carbon-emissions-with-2050-imperative/>

더반에서 열린 국제건축가협회(UIA) 세계회의에서 협회 회원 전원은 2050년까지 건조환경 개선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목표인 '2050 Imperative'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 '2050 Imperative'는 2015년 파리에서 소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콘퍼런스에서 동시에 추진 중이며,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제건축가협회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건축 분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도 특히 건물 부문은 세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70% 이상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향후 20년 안에 신축 및 재건되는 건축물의 면적은 현재 건조환경의 약 6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의를 건물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삼고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수립하고자 한다.

건축·건설 분야의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UIA의 중심목표

- 도시, 마을, 도시개발지역, 신축건물 등에 대한 탄소중립적 계획 및 설계를 지원한다. 이때 탄소중립적 계획(설계)이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 도시, 마을, 재개발지역, 건축물 등이 탄소중립화가 될 수 있도록 개·보수와 재생 전략을 수립하되 현존하는 문화적·유산적 가치는 보존한다.
- 탄소중립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를 지원한다.
- 205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한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축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정보 및 도구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지원한다.



©Ronald Lu and Partners (자료: archdaily)

영국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디자인 협의회(Design council), 고층건축물 계획 및 건설관련 권고사항 개정

<http://www.planningresource.co.uk/article/1318390/tall-buildings-advice-plan-making-submitting-assessing-deciding-planning-proposals>

잉글리시 헤리티지와 디자인 협의회는 지난 10월 고층건축물 계획 및 건설 자문과 관련한 권고사항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3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된 권고사항들은 국가계획정책기준(NPPF)에 의거, 개발대상 고층건축물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취하며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개선·향상시키고 △지역의 자산으로서 유산을 보존하는지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다. 아울러 대상지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고층건축물이 지역계획상에서 가지는 위계, 넓은 대상지의 맥락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룬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층건축물은 지방정부 소관의 영역을 넘어 광역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합, 관련 지방정부당국과의 협의를 요구한다.

고층건축물 건설을 기획하는 발주처는 계획제안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계획의 정당한 사유를 먼저 제시해야 하며, 지역계획의 주체인 지방정부 당국 및 기타 단체들과 제안서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디자인 및 평가보고, 환경영향평가의 권고사항 등은 간략하게 작성된다.

이번 권고사항에서는 고층건축물 관련 정책을 지역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피력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역할과 입지 등을 광역적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고,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지역의 역사적 환경 및 유산 등을 보존할 수 있다. 건축물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앞서 입지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건축물의 규모 및 품질요구사항 등에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그밖에 개발 착수 이전에 공공협의를 보장하고, 투기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예측된다.